

절실한 '주거'의 공유의식과 개선의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中)

주택

I.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집 문제를 둘러싼 갖가지 현상과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특히 민생 문제의 가장 큰 현상으로 떠오르며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인 주택문제 중 '집세 폭등'을 막는 절정은 집을 많이 짓는 것이다.

그러나 집을 많이 짓더라도 그 값이 너무 비싸져 대부분의 무주택자가 살수 없는 것은 또다르게 문제가 된다. 종합토지제도, 토지공개념법을 완화하지 말고 그대로 시행하여야 땅을 재산으로서 소유하는 자가 생지 않는 무주택자의 숨을 죽여 땅값이 안정

되고 그레이트아인 집값도 따라서 안정될 것이다.
'89년말 집값은 서울지역의 전국 평균의 46.6% (전설부 통계), 서울지역의 56.9%였다. 이들에게-우리에게-마음놓고 살 수 있는 '방 몇칸'을 제공할 수 있는 묘안이나, 사상 유례없는 전세값 폭등으로 전국이 열병을 앓고 있는데 대한 해결책을 가진자는 이제 명확하다. '지상의 방한간'을 찾아 변두리로, 도시외곽으로, 지하해방으로 '하향-외곽이동' 행진을 멈출 수 있는 자는 명확하다. 이제 주사위는 정부쪽에 넘어 있다.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대외 경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또한, 위정자들이 들먹이는 '국민'을 위해서도 문제의 우

선적 해결방안은 거기에 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국가의 결단'만이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공유의식과 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언제 왜 시작되었는가

서울지역의 전세값이 지난 1년 만에 34.7%나 오르는 등 전국의 도시전세값과 집값이 폭등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전세값과 집값은 그 이후 다소 추축하고 있으나, 수도권 위성도시의 집값과 전세값은 계속 뛰고 있다.

이러한 집값의 폭등 등 위기의 조짐은 구조적 통계보다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집없는 사람은 46.6%, 5백만가구 (89년말 건설부 통계)에 이른다. 참고적으로 토

목들은 일전 예상되었던 일이다.

왜냐하면 그 첫째 원인으로, 우리나라 대도시의 주택물량이 크게 모자람으로써 필연으로 일어난 부동산 투기 바람의 후유증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물량이 크게 모자라는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시장은 근본에서 '공급자 시장'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바람으로 집값이 급등로 뛰면 전세값도 그만큼 뛰기 마련이다.

그들처럼 또다른 원인은 전세이 오르는 것에 견주어 집값이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차 시장의 수요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왔

이러한 것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현 상향의 앞과 뒤를 살펴봄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해결에의 공유'로 나아가고자 한다.

III. 어디에 얼마만큼 와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70%를 맴돌고 있으므로, 숫자상으로 집이 가장 적게 잡아도 -330만가구가 모자란다.

한편으로 무주택 가구는 550만 가구에 이르러 도시인구의 60%, 총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집이 부족해져서 사는 사람은 많고, 세를 놓으려는 사람은 적은 초과수요 상태이니 집세는 내려가지는 않고, 올라가지만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89년말 전국평균으로 보자면 '89년에 27.5%', '89년에 31.9%'가 올라 '79년 뒤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속 힘들이었다.
'88년과 '89년의 임대 상승률은 전산업평균으로 저마다 15.5%, 17.8%에 지나지 않아 땅값 상승률에 크게 못미쳤다.
덧붙여 서울지역의 지난 1년 전세값 상승률이 34.7%라는 현실이 우리가 외와는 문제의 시점인 것이다.

IV. 이제 '지상의 방한간'을 위하여

한국 경제와 같은 시장경제 아래에서는 집세도 다른 모든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것이 집세이다.

누적되어온 주택부족현상이 초래한 수요초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의 상승 또는 인위적 결정이 집세의 상승을 초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그치지 말고, 해결을 위한 논의,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택문제의 해결의 큰 기준으로 '소유보다는 거주'라는 주택의 원래적 목적에 근거하기로 한다.

물론 방법상으로는 대량적인 주택공급이나, 임대주택 건설이나, 조세정책을 통한 주택문제의 조정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양적 부족현상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이전에 공유문제가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임시방편적이고, 현실을 무시하는 또한, 정부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대적 정책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주택문제의 해결은 첫째, 주택문제의 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기반을 다진다는 면에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시장관리기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저소득층의 주거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주거교육의 충격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임대할 때 나타나는 소득과 자산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금융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택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체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정책입안을 통한 구체성과 현실성의 추구와 더불어 집행의 지를 확보해 나아가는 것이, 그나마 현실을 헤쳐나가는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주거'의 '공유'의식을 통해 집값 폭등으로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 사회적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 간과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성권
<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

데스크콜

박웅

< 본보 논설부장 >

사회가 극도로 불안하고 인심이 날로 흉포화 되어 간다고 언론은 매일 떠들어 대고 있다. 대낮 4인조 강도, 가정파괴 범사형선고, 인신매매단 검거, 공기총난사사건, 살인, 방화등 하루에도 수십건의 범죄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의 사회구조 속에서 소외되어온 이들의 자학심리와 충동심리가 최고의 범죄자들의 범죄유구로 이어진다고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는 진단했다. 범죄가 다양해지고 많아진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또한 강력해져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응당 있어야 되고 반드시 죄의 값만큼 갚아줘야 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데 결단코 형평을 잃어서는 안되는 게 원칙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해야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 00년을 선고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띈다.
여기서 특정범죄가중처벌이란 말대로 특정범죄 어떤 죄에는 그 벌을 가중시켜 적용한다는 뜻인데 그 범죄의 성질이 아주 위험스럽거나 흉포하여 그 피해자가 대다수 선량한 많은 사람이 되며, 혹은 빈번히 같은 죄를 짓는 자에게 처벌을 무겁게 내린다는 법적조항이다. 그래서 경제범죄, 즉 국민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성질의 범죄에 자주 적용되고 있다.

를 확보한 민자당은 그야말로 남남내에 서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무언이든지 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조직력을 획득한 것이다.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확실한 민주적 운운하던 김영삼과 유신의 잔당이라고까지 비관받던 김종필이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지지하던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고 여당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 정치권의 과반수를 야당으로 밀어준 국민들은 허탈해지고 말았다.
3당 합당후 국민의 생존권은 엄청나게

에 대한 범죄행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X X X

언급되었던 바 범죄의 환경이 사회구조적 모순에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 범죄 역시 정치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 결국 민자당이던 거대여당을 정치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반증한다.
그러나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정치적 범죄를 무엇이라 해야하는가. 특정범죄에 해당될 것인가?
수많은 세입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고, 많은 노동자와 학생, 지식인들을 테러, 탄압하는 등 국민생존을 위협하였으며 그 죄의 성질로 모아 재벌의 우위가 높고 반성의 소리조차 보이지 않는 특정범죄(?)가 있다면 과연 이는 어떻게 선고문을 작성 할 것인가! 혹 가중처벌 등을 적용하여 정치적 범죄를 특정범죄(?)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법적조치를 상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피고는 수많은 세입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고, 많은 노동자와 학생, 지식인들을 테러, 탄압하는 등 국민생존을 위협하였으며 그 죄의 성질로 모아 재벌의 우위가 높고 반성의 소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특정범죄에 관한 가중처벌 등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해체를 선고한다. 땅땅땅...

국민뜻 어긋난 민자창당

그 처벌의 형평성을 묵인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특정한 범죄를 묵인할 수 없는 사회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험을 받았다. 1천여명이 넘는 양심수는 제의하더라도 추가폭락을 날게 했고,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등 국민의 여망을 무시했으며, 거대 공룡 민자당내의 권력다툼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 전세값은 자꾸 뛰어 폭등을 겪은 국민들이 생겨나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민중의 생존에 타격을 주었다. 뿐만아니라 국민의 방송이여야 할 KBS등에 공권력을 투입, 방송을 장악하려 했고 울산등지에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테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정치권의 국민

메기저상

명예기자석은 경화가족 모두의 참여랍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에는 성실히 들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2~4매
◇보낼곳 : 서울 <본사편집실>, 수원 <공과대학 614호>

울산 현대중을 다녀와서 노학연대의 시발적 역할

지난 4월28일부터 5월 2일까지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투쟁 현장에 노학연대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노학연대의 일원으로서 느낀 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울산시 동구일대는 폭력경찰이 쏘아댄 최루탄연기로 캄캄해 있었고 거리에는 공권력투입에 반대하고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는 가두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국민도 아니고 그저 일만하는 기계이며 군사작전으로 진압해야 할 적군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 작금의 노동현황에 대해 현충노조를 비롯한 전노협신화50여개 노조는 투쟁의 불길게 거세게 당겼다. 풀리앗 크레인속의 저절로 투쟁에서부터 마장노련의 한 노동자의 분신투쟁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싸우고 있다. 이제 청년학생의 입문은 당연해졌다. 이번 노학연대의 역할은 강고한 노

하게 된다.
지상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대학에서 그것도 전리투구의 심장이 되어서의 이러한 몰상식한 행동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
우리가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우리 스스로 애고 깨끗이 사용해야 되고 양을 생각해가다. 덧 붙여 학교당국에서 꺼내듯 도서관 환경을 위해 분수대 속을 한번쯤 청소하는 성의를 보였으면 한다.

차정욱 <철학>

민자당 해체식 참가 학생의 본분 되새겨

민자당 해체와 5월투쟁 완전 승리를 위한 민족국권 결의대회'가 5월8일 공대앞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다음날로 다가온 민자당 전당대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단호한 의지로 결합한 학우들이 80여명에 이르렀고, 이날과 하여우 9명은 형사로서 그들의 의지를 밝혔다.

5월9일 거리에서 많은 시민을 만나보았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민자당의 허구성을 꼬집고 있었다. 논술과 콧물도 법박이 되어 거리를 다니다가 문득 '학생의 본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식의 풍부화와 전문성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회정의의 구현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조금 뒤에야 나를 일깨웠다.

오대호 <국문>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③



“오빠!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있다면 참 좋을거야. 그렇지?”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수소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그 에너지를 함으로 사용했으면 맹물로 가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을거야.
자동차가 맹물로 가게 되면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기름 걱정 안해도 될거고, 또 수돗물을 넣고 산나게 달리다 다시 시냇물 한바가지 부어넣고 부응- 정말 편하고 좋겠지?
그런데 맹물 알코올로 가는 자동차를 개발해서 시험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지만 아직 아무도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완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윤정이가 지금부터 꿈을 갖고 연구해서 만들어보면, 지금까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 크고 작은 발명품들도 상상만 해도 많은 꿈으로부터 시작했단다.
상상만 해도 맹물로 가는 자동차의 역류발명가 윤정-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겠나?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